

# ‘비대면 진료’ 시범 산 넘어 산... 이번엔 조제약 배달 갈등

### 약사회 “약 배달로 오배송·오남용 등 안전 우려” 업계 “비대면 진료 후 약은 방문 수령 하라는 격”

비대면 진료 시범을 앞두고 약 배송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의 비대면 진료만큼이나 조제약 배송 여부도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플랫폼 업체와 약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환자만 허용하고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대는 일정 부분 사그라들었다. 이제 시범사업의 공은 약사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우선 약사회는 비대면 처방을 통한 약물 오남용, 약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등

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처방된 약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빼놓을 수 없다는 기조를 밝히면서 우려는 거센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회는 전날 ‘비대면 시범사업 저지 결의대회’에서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이

대중화로 예상되는 약국 피해도 비대면 진료 반대 배경으로 작용한다. 약 배송 서비스가 일반화될 경우 병·의원 근처에서 처방약을 주로 판매하는 약국들의 수익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국 약사는 “동네 약국은 각 병원을 기반으로 고객 유입이 정해진 것과 같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약배송이 계속 가능하면 결국 동네 기반 영업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약국 출몰에 대한 목소리가 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은 빠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비대면 진료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약 오배송의 경우 배송 전문원 육성, 교육 등을 통해 해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비대면 진료 양측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특별한 스승의 날 함께 하트’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선생님과 만학도들이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 의료연대, 총선거획단 출범... ‘간호법 거부권’ 압박 포석

### “당정 간호법 중재안 수용 의사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총선거획단을 출범시켰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의료연대는 14일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지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의료연대의 총선거획단 출범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지역은 두 동강이 났다”며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지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하고, 공정

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하겠다”며 “총선거획단은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특정 지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지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삼겠다”면서 “각 보건복지의료지역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각자의 업무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 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지역 간 견해 차이를 중재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소수 지역들의 전문성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의료지역 종사자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돌봄과 복지, 보건과 의료의 분절적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보건과 의료, 돌봄과 복지가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상생 발전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거획단 출범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수 있도록 보건의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8대 정책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